

그는 시를 자유로운 사회의 전체주의를 선호했지만, 어떠한 경우도 통치의 전체주의는 최대한의 명확한 언어로 거부했다.

일반의지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구조가 투명해야 한다.

그와 같은 초월성적인 것에 대한 가정은 루소 이전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와 방종을 조리 있게 구분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방종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데 있으며, 자유는 좋은 것만을 올바른 방식으로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좋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더 높은 원리, 즉 위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좋은 것이란 선이다.

좋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위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형상에 대한 얘기이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주장하는 동일한 권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여한다면 그러한 권리들이 무엇이든지 정의롭다는 것이다.

모두가 서로에게 보복할 수 있으니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